

# 학교 따돌림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김동희<sup>1</sup> · 김영신<sup>2,3</sup> · 고윤주<sup>4</sup> · Bennett L. Leventhal<sup>5</sup>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sup>1</sup>,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sup>2</sup>,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sup>3</sup>,  
루돌프 어린이 사회성 발달연구소 소장<sup>4</sup>,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교수<sup>5</sup>

##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of Adolescents

Dong Hee Kim<sup>1</sup> · Young Shin Kim<sup>2,3</sup> · Yun-Joo Koh<sup>4</sup> · Bennett L. Leventhal<sup>5</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up>2</sup>Assistant Professor, Child Study Center,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p>4</sup>Director, The Korea Institute f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sup>5</sup>Professor, Nathan Kline Institute for Psychiatric Research and New York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o examine whether three, specific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re associated with school bullying.

**Methods:** A longitudinal study was conducted among 1585 seventh and eighth-grade students in two middle schools participated in the study between 2000 and 2001. The instruments were the Korean Peer Nomination and Child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measuring three dimension of parenting practice: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Descriptiv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Results:** The ORs of perpetrator with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parenting was 1.065 (confidence interval: 1.008~1.126).

**Conclusion:** Adolescents who were experiencing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was at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for being perpetrators. Development of preventive and intervention programs with the goal of improving parenting skills may help to reduce adolescent school bullying.

**Key Words:** School bullying, Parenting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집단 따돌림은 한 명 이상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그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이다 (Olweus, 1994). 우리나라 학교 따

돌림 실태에 대한 여러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형태나 가해자의 형태로든 학교 따돌림의 경험을 가진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70%까지로 나타났으며 최근 학교 환경에서 따돌림 현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영신 외, 2001; 장미향 외, 2007).

학교 따돌림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장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하겠다. 따돌림의 피해자들은 수치감과 당혹감,

**Corresponding author:** Young Shin Kim, Child Study Center,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0 S. Frontage Rd., SHM1-379 P.O. Box 207900 New Haven, CT 06520-7900 USA. Tel: 1-203-785-2198, Fax: 1-203-785-7402, E-mail: young-shin.kim@yale.edu

-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Health Promotion Grant 2000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년 5월 3일 접수, 2010년 10월 20일 채택

두려움, 자신감, 자아존중감의 결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생활의 적응장애, 학업 저하, 신체화 증상 등을 경험하게 된다 (박정호, 2007; 안정숙과 신승우, 2002; Nansel et al., 2004; Rigby, 2003).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공격성, 외현화 문제 등의 정서, 행동,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005; Kim et al., 2006; Nansel et al., 2001). 학교 따돌림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Allison et al., 2009). 이와 같이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따돌림은 사전 예방과 적절한 중재가 필수적이다.

학교 따돌림 발생의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소 등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 따돌림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체계적인 중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학교 따돌림 관련요인으로는 정신과적 증상, 행동 문제 같은 아동의 개인 특성이나 가족 구조, 경제력, 학교 같은 환경 특성 등이 있다 (김승경, 2006; 박진, 2003; Ball et al., 2008; Hodges & Perry, 1999; Turner et al., 2007; Zimmerman et al., 2005). 학교 따돌림의 관련요인을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관점은 학교 따돌림이 개인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일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학교 따돌림의 책임을 피해 및 가해 아동들에게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 반면 아동의 환경 요인을 포함한 관련요인의 연구는 학교 따돌림의 맥락적 이해와 효과적인 중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요한 학교 따돌림의 관련요인 중 하나로 (김종운과 이명순, 2009; Georgiou, 2008; Ohene et al., 2006; Schwartz et al., 2000) 학교 따돌림 중재와 예방에 접근이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학교 따돌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동의 특성은 학교 따돌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학교 따돌림의 피해자의 경우 그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고, 자녀의 행동에 덜 반응하고, 과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김선희, 2004; 박진영, 2008; Georgiou, 2008; Kaufmann et al., 2000),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나 인지적 자극 제공이 부족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거나 반대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2004; 박진영, 2008; 이문자, 2004; Demaray & Malecki, 2003; Zimmerman et al., 2005). 피해

하는 혼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Schwartz et al., 1997).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의 양육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국내 아동,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학교 따돌림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육행동을 학교 따돌림과 관련된 중요 변수로 보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횡단연구로 설계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학교 따돌림에 대한 양육행동의 시간적인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더라도 현재 학교 따돌림 유형이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학교 따돌림 유형이나 기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 문제 행동 같은 중요한 혼동변수가 조절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혼동변수를 조절한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학교 따돌림과 양육행동의 종단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학교 따돌림 측정 방법상의 문제이다. 학교 따돌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사방법에는 자가보고와 또래 지명법이 있다. 자가보고법은 학교 따돌림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학교 따돌림 가능성에 민감하고 본인의 경험에 생생하고 오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정서적 반응이 강할 때 더욱 유용하다 (Ladd & Kochenderfer-Ladd, 2002). 그러나 자가보고법은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또는 숨기고 싶은 학교 따돌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래 지명법은 학교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지켜본 또래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영신 외, 2001). 게다가 이것은 학교 따돌림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집단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K-PNI)를 사용하여 학교 따돌림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양육행동의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이 종종 무시되어 왔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반영되어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여 부모 양육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모 양육행동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Dishion & Kavanagh, 2000; Galambos et al., 2003; Green et al., 2007).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나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양육행동과 학교 따돌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또한 양육행동 각각의 유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따돌림 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중요한 혼동변수인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행동 문제의 영향을 조절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이는 학교 따돌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따돌림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중요한 혼동변수인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행동 문제의 영향을 조절한 후 학교 따돌림 각각의 유형-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과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온정-수용은 각 학교 따돌림 유형에 보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거부-제재, 허용-무관심은 각 학교 따돌림 유형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따돌림 유형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자가 임의 표출한 서울과 안양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의 1, 2학년생 1,759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불완전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118명을 제외한 1,641명 (93.3%)이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1,585명 (90.1%)이 2차 조사에 포함되었다.

### 3. 연구도구

- 1)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 (K-PNI; 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Perry (1988)에 의해 개발된 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를 김영신 (2001)에 의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되고 검증된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 (K-PNI)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질문 12문항, 가해 아동에 대한 질문 7문항, 중립적인 질문 11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PNI는 또래 아동들이 자신의 반에서 학교 따돌림의 경험을 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제한 없이 적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 학생, 학교 따돌림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피해-가해 학생을 구분해 내는 도구이다. 도구 개발 당시 피해 및 가해 아동 분류와 또래수용도, 자아지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집단 따돌림 분류에 대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따돌림 유형에 따라 .90~.94로 나타났다.

### 2)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영애 (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정선영 (200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 행동이 포함된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위들을 말한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에·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들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아주 다르다 (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 (4점)'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양육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동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정선영 (200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하부요인 별로 .70~.91이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81~.92로 나타났다.

### 3)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K-YSR)

Achenbach (1991)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인 YSR (Youth Self Report)을 오경자 등 (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

한 K-YSR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신의 사회 적응 능력, 정서 및 행동문제 등을 평가하는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12~17세를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문제행동 척도는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는 '0점' (전혀 없다), '1점' (가끔이나 약간), '2점' (매우 심하거나 자주)의 0~2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제 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 문제, 내제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제 행동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내제화 문제, 외현화 문제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오경자 등 (1997)의 표준화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임상집단의 절단점인 T-점수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내면화 문제 행동은 .93, 외현화 문제 행동은 .91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0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자료수집을 시행하였고, 10개월 후인 2001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자료수집을 하였다. 2차 자료수집시기에는 참가 학생들이 한 학년을 진급하여 반과 담임교사가 바뀌어서 동일 학급이나 교사의 특성이 학교 따돌림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한림대학교 부속 성심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교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각 담임선생님과 학과선생님에게 연구목적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수업시간에 시행하였다. 설문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설문 참여의 자유,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 작성을 진행하였다. 연구원 3명의 지도 및 보조 하에 대상 학생들에게 1차 수집 시에는 K-PNI, K-YSR과 양육행동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차수집시에는 K-PNI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연구원들은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 보조원으로서 연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3시간 동안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각 연구원은 개별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씩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는 익명으로 시행하여 연구대상의 답변이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약 50분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 5.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부모의 영역별 양육행동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학교 따돌림 유형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학교 따돌림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 가족 구조, 부모의 학력, 거주지, 사회경제적 상태,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기존 행동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다중 회귀모형의 공변량으로 포함시켰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 사항

대상 학생의 약 36%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성별과 학년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87.5%), 경제적 상태를 '중' (66.5%)이라고 응답하였다. 53.7%의 아버지와 35.6%의 어머니가 대학 졸업자였다. 약 40%의 학생들이 학교 따돌림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중 가해자가 13.9%, 피해자가 17%, 피해-가해자가 8.9%였다 (Table 1).

### 2. 양육행동 점수

대상 학생들이 인지한 양육행동 점수는 하위 척도별로 모두 10점에서 40점까지의 분포 (가능한 점수범위: 10~40점)를 보였으며, 온정-수용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허용-무관심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Table 2).

### 3. 학교 따돌림과 청소년이 인지한 양육행동과의 관계

성별, 나이, 가족 구조, 부모의 학력, 거주지, 사회경제적 상태,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기존 행동문제를 통제 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온정-수용은 각 학교 따돌림 유형에 보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가설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거부-제재, 허용-무관심은 각 학교 따돌림 유형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 부모의 허용-무관심은 각 학교 따돌림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유형과 가해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유형으로 인지한 대상자의 ORs는 1.065 (confidence interval: 1.008~1.126)이었다. 이는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10점 올라갈 때마다 학교 따돌림 가해자 위험이 1.87배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1,585)**

| 특성        | n    | %    |
|-----------|------|------|
| 거주지       |      |      |
| 서울        | 572  | 36.1 |
| 안양        | 1013 | 63.9 |
| 성별        |      |      |
| 남         | 864  | 54.5 |
| 여         | 721  | 45.5 |
| 학년        |      |      |
| 1학년       | 783  | 49.4 |
| 2학년       | 802  | 50.6 |
| 가족구조*     |      |      |
| 부모 모두와 동거 | 1387 | 87.5 |
| 아버지와 동거   | 38   | 2.4  |
| 어머니와 동거   | 51   | 3.2  |
| 조부모와 동거   | 19   | 1.2  |
| 부모 학력*    |      |      |
| 아버지 ≤ 12y | 686  | 43.3 |
| 아버지 > 12y | 851  | 53.7 |
| 어머니 ≤ 12y | 921  | 58.1 |
| 어머니 > 12y | 564  | 35.6 |
| 경제 상태*    |      |      |
| 상         | 29   | 1.8  |
| 중상        | 276  | 17.4 |
| 중         | 1054 | 66.5 |
| 중하        | 160  | 10.1 |
| 하         | 13   | 0.8  |
| 집단따돌림 유형  |      |      |
| 비개입       | 954  | 60.2 |
| 피해자       | 220  | 13.9 |
| 가해자       | 269  | 17.0 |
| 피해-가해자    | 141  | 8.9  |

\*결측치로 퍼센트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 항목임.

**<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점수 (N=1,585)**

| 변수  | 양육행동   | 평균    | 표준편차 | 범위    |
|-----|--------|-------|------|-------|
| 어머니 | 온정-수용  | 29.12 | 5.67 | 10~40 |
|     | 거부-제재  | 20.75 | 5.44 | 10~40 |
|     | 허용-무관심 | 19.07 | 4.07 | 10~40 |
| 아버지 | 온정-수용  | 28.15 | 6.21 | 10~40 |
|     | 거부-제재  | 19.67 | 5.53 | 10~40 |
|     | 허용-무관심 | 19.57 | 4.36 | 10~40 |

## 고찰

학교 따돌림은 가장 흔한 형태의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비정상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또래 관계로 해석되며 성장기 동안의 부정적인 성격 형성의 결과나 부적절한 인간관계 습득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성격 형성, 가치관과 대인 관계 습득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성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성격을 형성해 나간다. 또래집단간에 나타나는 자녀의 성격이나 태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 따돌림에 대한 관련요인을 연구할 때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Patterson, 1986).

학교 따돌림의 각 유형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중 특히, 어머니의 거부-제재의 양육행동이 학교 따돌림의 가해자와 연관이 있었다. 이는 가해아동의 부모들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권위적이며 엄격하고 처벌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Demaray & Malecki, 2003; Espelage et al., 2001).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자녀를 다루는데 있어서 애정이 결핍되고 관심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고 거칠고 냉담한 행동을 하는 등 아동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아동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손상시키고 무력감과 좌절감을 일으키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 도둑질, 거짓말, 잔인성을 갖게 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차별대우, 벌, 잔소리 등의 태도는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아동은 부모에게서 애정이나 주목을 얻으려는 행동이 나타나고 정서적 통제가 미숙하며 공격성과 내면적 갈등이 극대화되어 폭력적이 되는 등 여러 행동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배척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반발심이 고조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남을 가해할 성향이 높아진다 (Olweus, 1994).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 명령, 간섭하고 금하며 엄한 표준에 맞추어 행동을 강요하여 자녀를 다루려는 태도이다. 통제적 태도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행동이 위축되고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며 반항, 분노와 적대감

**<표 3> 학교따돌림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

| 변수  | 양육행동   | 피해자                 | 가해자                 | 피해-가해자              |
|-----|--------|---------------------|---------------------|---------------------|
|     |        | OR (95% CI)         | OR (95% CI)         | OR (95% CI)         |
| 어머니 | 온정-수용  | 0.951 (0.886~1.022) | 0.997 (0.943~1.055) | 0.968 (0.892~1.050) |
|     | 거부-제재  | 0.970 (0.897~1.050) | 1.065 (1.008~1.126) | 0.995 (0.921~1.074) |
|     | 허용-무관심 | 0.948 (0.971~1.031) | 1.029 (0.965~1.097) | 1.013 (0.920~1.116) |
| 아버지 | 온정-수용  | 1.020 (0.952~1.092) | 1.054 (0.998~1.113) | 1.017 (0.940~1.100) |
|     | 거부-제재  | 1.042 (0.963~1.128) | 1.013 (0.958~1.072) | 1.036 (0.961~1.118) |
|     | 허용-무관심 | 1.051 (0.972~1.137) | 0.980 (0.922~1.042) | 0.972 (0.885~1.067) |

\*OR값은 성별, 나이, 가족 구조, 부모의 학력, 거주지, 사회경제적 상태,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기존 행동문제를 보정한 값임.

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친구들을 따돌리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명령적이거나 비난을 자주하는 부모들의 양육 행동은 타인을 조절하거나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전략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통제的方法으로 부모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자녀들은 학습을 통해 그들보다 힘이 없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부모의 빈번한 강압적인 행동은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기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강화되어 동료와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Patterson et al., 1989).

이와 같이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반항, 공격, 적대심, 폭력, 비행 같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Akse et al., 2004; Brotman et al., 2009). 궁극적으로 아동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학교에서의 학교 따돌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피해-가해자와는 어떤 양육행동 영역과도 관련이 없었다. 피해, 가해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각각 따로 확인하였다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지만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학교 따돌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로 일차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향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권희경, 2009).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도 계속 연구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전국단위의 자료가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유전이나 성격 (Ball et al., 2008; Glaso et al., 2007) 등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혼동변

수들로 생기는 잠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가 10년 전 자료이므로 현재의 학교 따돌림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요한 혼동변수인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기존 행동 문제의 영향을 조절한 후 양육행동과 학교 따돌림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계를 보아 학교의 학교 따돌림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건강관리자들은 학교 따돌림에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게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거부, 과잉 통제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줄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학교 따돌림의 예방적인 상담과 중재 전략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강조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중요한 혼동변수인 기존 학교 따돌림 유형과 행동 문제의 영향을 조절한 후 청소년 학교 따돌림 각각의 유형-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과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의 양육행동이 학교 따돌림의 가해자와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양육행동,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인 거부 제재의 양육행동은 학교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가정은 따돌림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돌림 예방과 중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따

돌림 발생 시 자녀는 물론 부모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 적극 부모들의 양육행동을 점검해보고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행동을 인식시키고 수정하도록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의 양육행동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상담 및 훈련 등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 참여도, 어머니 양육 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 교육학회지**, 13(4), 79-98.
- 김선희 (2004). **부모 양육태도 및 아동학대피해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59, 서울.
- 김승경 (2006).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의 차이. **심리치료**, 6(1), 117-134.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1).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 (K-PNI) 개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5), 867-875.
- 김종운, 이명순 (2009).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10(3), 1645-1661.
- 박종효 (2007). 집단따돌림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8(1), 247-272.
- 박진 (2003).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대처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10, 355-369.
- 박진영 (2008).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52, 서울.
- 안정숙, 신승우 (2002).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신경정신의학**, 40(6), 1166-1173.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문자 (2004).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1), 41-61.
- 장미향,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정선영 (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23, 서울.
- Achenbach, T.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kse, J., Hale, W. W., Engels, R. C., Raaijmakers, Q. A., & Meeus, W. H. (2004). Personality,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nd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39(12), 980-988.
- Allison, S., Roeger, L., & Reinfeld-Kirkman, N. (2009). Does school bullying affect adult health? Population survey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ast victimization. *Aust N Z J Psychiatry*, 43(12), 1163-1170.
- Ball, H. A., Arseneault, L., Taylor, A., Maughan, B., Caspi, A., & Moffitt, T. E. (2008).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in childhood. *J Child Psychol Psychiatry*, 49(1), 104-112.
- Brotman, L. M., O'Neal, C. R., Huang, K. Y., Gouley, K. K., Rosenfelt, A., & Shrout, P. E. (2009). An experimental test of parenting practices as a mediator of early childhood physical aggression. *J Child Psychol Psychiatry*, 50(3), 235-245.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3).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by students classified as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in an urban middle school. *School Psych Rev*, 32(3), 471-490.
- Dishion, T. J., & Kavanagh, K. (2000). A multilevel approach to family-centered prevention in schools: Process and outcome. *Addict Behav*, 25(6), 899-911.
- Espelage, D. L., Bosworth, K., & Simon, T. R. (2001). Short-term stability and prospective correlates of bullying in middle-school students: An examination of potential demographic, 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Violence Vict*, 16(4), 411-426.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 74(2), 578-594.
- Georgiou, S. N. (2008). Bullying and victimization at school: the role of mothers. *Br J Edu Psychol*, 78(Pt 1), 109-125.
- Glaser, L., Matthiesen, S. B., Nielsen, M. B., & Einarsen, S. (2007). Do targets of workplace bullying portray a general victim personality profile? *Scand J Psychol*, 48(4), 313-319.
- Green, J., Stanley, C., & Peters, S. (2007). Disorganized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atypical parenting in young school age children with externalizing disorder. *Attach Hum Dev*, 9(3), 207-222.
- Hodges, E. V.,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 Pers Soc Psychol*, 76(4), 677-685.
- Kaufmann, D., Gesten, E., Santa Lucia, S., Salsedo, O., Rendina-Gobioff, G., & Gadd, R.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parents' perspective. *J Child Fam Stud*, 9(2), 231-246.
-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2005).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115(2), 357-363.
- Kim, Y. S., Leventhal, B. L., Koh, Y. J., Hubbard, A., & Boyce, W. T. (2006). School bullying and youth violence: Causes or consequences of psychopathologic behavior? *Arch Gen Psychiatry*, 63(9), 1035-1041.
- Ladd, G. W., & Kochenderfer-Ladd, B. (2002). Identifying victims of peer aggression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Analysis of cross-informant data for concordance, estimation of

- relational adjustment, prevalence of victim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dentified victims. *Psychol Assess*, 14(1), 74-96.
- Nansel, T. R., Craig, W., Overpeck, M. D., Saluja, G., & Ruan, W. J. (2004). Cross-national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behavior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rch Pediatr Adolesc Med*, 158(8), 730-736.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AMA*, 285(16), 2094-2100.
- Ohene, S. A., Ireland, M., McNeely, C., & Borowsky, I. W. (2006). Parental expectations, physical punishment, and violence among adolescents who score positive on a psychosocial screening test in primary care. *Pediatrics*, 117(2), 441-447.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ol Psychiatry*, 35(7), 1171-1190.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 Psychol*, 41(4), 432-444.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 Psychol*, 44(2), 329-335.
- Rigby, K. (2003). Consequences of bullying in schools. *Can J Psychiatry*, 48(9), 583-590.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 68(4), 665-675.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Dev Psychol*, 36(5), 646-662.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07). Family structure variations in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ild victimization. *Am J Orthopsychiatry*, 77(2), 282-295.
- Zimmerman, F. J., Glew, G. M., Christakis, D. A., & Katon, W. (2005). Early cognitive stimulation, emotional support, and television watching as predictors of subsequent bullying among grade-school children. *Arch Pediatr Adolesc Med*, 159(4), 384-388.